



11 중문천 학술 탐사

지속 가능한 선진 관광자원으로써 중문천의 생활문화에 대한 소고

양 종렬
제주교육박물관

I. 들어가며

1. 중문천의 자연

제주특별자치도는 유네스코 3관왕(2002. 12. 16. 생물권보전지역, 2007. 6. 27. 세계자연유산, 2010. 10. 01. 세계지질공원)과 세계7대자연경관 지정(2011. 11. 12.)으로 자연

생태계가 독특하고 우수함을 세계적으로 인정을 받았고, 그러한 자연자원을 기반으로 명실공히 세계적 관광지로 발돋움하고 있다.

이러한 천혜의 자연자원 중 하나인 중문천은 서귀포시 서쪽에 위치하며 색달마을과 중문마을을 가로질러 남북으로 흐르는 하천으로, 서귀포시 중문동 해안가에 위치한 성천포구 또는 베릿내에서 시작하여 천제2교, 천제연, 백구교, 제2천상교, 중문2교, 중문교 따라 영실방향으로 12km을 올라간다. 중문천은 3단 폭포를 거쳐 색달교(橋)을 건너 녹하지악 앞에서 중문천과 색달천으로 나뉘어진다. 학술조사단에서는 녹하지악을 왼편으로 두고 중문천을 따라 발원지까지 도보로 답사를 하였다.

중문천은 하늘이 내려주신 천연의 자연을 품에 안고 있다. 하류는 바다와 접하고 있고, 천제연폭포¹⁾라는 3단 폭포가 있는 곳이다. 제1단 폭포는 중문 마을과 색달마을 연결하여 주는 제주일주도로상에 놓여 있는 다리 밑에서 계곡하천에서 떨어지는 풍광은 실로 감탄이 저절로 나온다. 폭포의 높이가 22m, 물이 떨어지는 못의 깊이는 지금은 얕아졌지만 예전에는 21m, 둘레가 50m정도 였다고 한다. 그 폭포 옆에는 조그만 동굴인 궤가 있다. 규모는 높이 3m 너비 5m로, 궤에는 천정에서 물이 항상 떨어져 마을 주민의 음용수로 사용하곤 하였다. 이 물은 신경통과 피부병에 좋다고도 한다. 제1폭포에서 남쪽으로 40여m 아래에 위치한 2단 폭포는 높이가 17m, 너비가 8m, 제2폭포에서 다시 100여m 아래에 위치한 3단 폭포는 높이가 5m이다. 3단 폭포에는 무태장어가 서식하고 있다.



사진 1. 녹하지악

1) 천제연이라는 명칭은 언제부터 사용하였는지는 모르나 기록에 의하면 문인화가인 학산 윤제홍의 <천제연도>에서 나타난다. 그 앞인 이형상 목사가 1702년에 그린 탐라순력도 <현폭사후>와 임관주의 시 마애명은 1767년에는 천지연으로 표기되어 있다.

중문천 하류 계곡에는 숲이 울창하다. 천제연 계곡에는 담팔수나무(도지정문화재 기념물 제14호) 등 100여 종의 나무로 난대림(천연기념물 제378호)을 형성하고 있다.

2. 주변 문화

바다와 접한 하류에는 포구가 있다. 서쪽에는 색달동으로 1973년 제주도종합개발계획에 의해 중문관광단지가 조성되어 위락시설과 숙박시설, 그리고 문화시설인 각종 사립박물관, 식물원인 여미지, 해양수족관, 돌고래·바다사자·펭귄의 묘기를 볼 수 있는 퍼시픽랜드 등이 있으며, 포구 동쪽 중문동에는 배릿내 오름, 역사유적, 어촌계에서 운영하는 체험어장과 국제회의 등을 개최하는 컨벤션센터가 자리하고 있다.

하류에는 제주해양레저용으로 파라세일링, 보트투어, 카약투어, 바나나보트를 이용할 수 있고, 중문어촌계에서는 어촌체험마을²⁾을 운영하고 있다. 바닷가 인근에 너들이 운영하는 해녀식당이 있다. 이 바다에서 작업하는 잠녀 수는 15명으로 연령층이 58세~84세이다. 중류에는 천제연 폭포와 자연의 풍광을 하늘에서 볼 수 있는 선임교³⁾, 밑에는 목재산책로를 시설하여 계곡과 수풀을 둘러 볼 수 있도록 하였다. 주차장에는 4·3 당시 중문동 지역에서 희생된 사람들의 원혼을 달래는 4·3 희생 기념탑, 칠선녀축제장, 방사탑, 마애명 등 역사자료, 그리고 음식점 등 상가가 자리잡고 있다. 상류에는 골프장, 오름, 목초지 등이 분포한다.

3. 조사목적

최근의 관광형태는 단순히 보는 관광에서 보고 직접 체험하고 즐기는 관광으로 변화하고 있다. 또한, 주 5일제 시행으로 역사·문화 탐방을 겸한 관광형태가 점점 늘어나고 있다.

문화관광의 정의는 ‘사람들의 모든 이동을 의미하며, 이러한 활동이 인간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키고 개인의 문화수준을 향상시키며 새로운 지식과 경험을 접할 수 있다(WTO, 1985)’라고 하였다. 또한 과거의 문화관광은 문화재, 박물관, 유적지 등 주로 전

2) 마을어장 면적 445,700㎡, 유어장 신청 면적 211,700㎡, 지정구역은 중문동 지삿개 유어장으로, 기간은 2008년 5월 9일부터 2014년 5월 29일까지입니다. 1일 1인 어류 2마리까지 허용하고 있다.

3) 선임교는 천제연 2단과 3단 폭포 중간에 가로질러 설치된 철재아치형 교량으로 길이 128m, 폭 4m, 높이 78m의 오작교 형태로 남과 북쪽 난간, 외부 면에 칠선녀가 조각되어 있다. 선임교의 준공을 앞두고 1981년 12월 17일 부실공사로 인하여 붕괴되는 사고가 있었다.

통문화유적을 소재로 한 관광만을 의미하였으나, 현대에는 전통문화와 관련된 관광행태에서 벗어나 현대생활문화, 토속적 생활양식, 각종 행사, 예술영역까지도 포함하고 있다⁴⁾. 따라서 중문천에는 울창한 숲과 역사적으로 많은 문화가 살아 있는 지역으로 많은 관광객들이 방문하는 곳으로, 이러한 자연과 역사적 생활 문화유적이 복합적으로 어우러져 있는 중문천 일대의 문화관광적 요소들을 찾아보고 재조명하여, 문화가 살아 숨쉬고, 삶의 질을 한층 더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는 문화관광지를 만드는데 일조를 하고자 한다.

II. 조사방법 및 기간

1. 조사방법

제주특별자치도내 4개 국·공립박물관(국립제주박물관, 국립제주대학교박물관, 제주특별자치도민속자연사박물관, 제주교육박물관)에서 공동학술 조사단을 구성하고, 조사원들이 합동으로 4차에 걸쳐서 해안에서부터 중문천의 발원지까지 12km를 걸어서 답사를 하면서 주변의 유적을 관찰하였다. 현지조사에는 공동답사와 개인적 답사를 하였고, 그외 공공기관 담당자와 전화 및 현지 개인 면담을 하였다. 현장 유적지 및 주변을 조사하면서 사진촬영을 병행하고, 중문천과 관련된 문헌을 참조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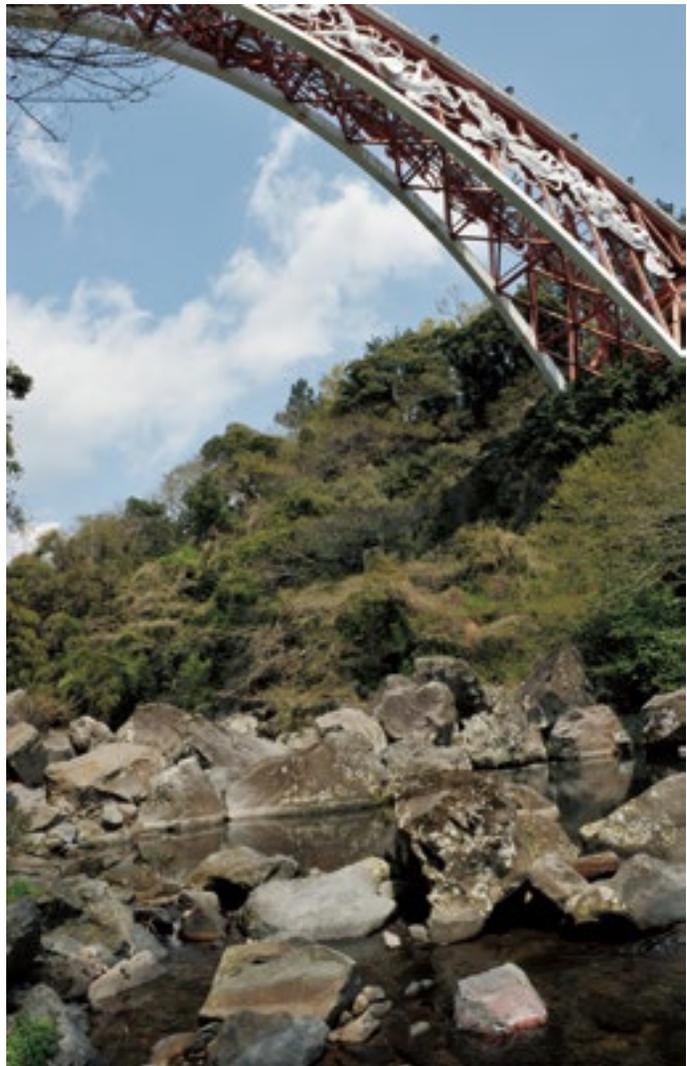


사진 2. 선임교

4) <http://blog.naver.com/hoony603?Redirect=Log&logNo=110150236187> 2013. 10. 29.

2. 조사기간

2013년 4월 3일 배릿내에서 학술조사단 출정식을 거행하였다. 학술조사는 학술조사단에서 공동으로 5월 9일, 6월 4일, 10월 4일, 개인적으로는 10월 18일, 10월 30일, 11월 30일, 12월 16일에 현지조사를 하였다.

Ⅲ. 조사내용

1. 천제연 전설

천제연에 따른 전설은 여러 가지가 있다. 그 중 하나는 옥황상제의 일곱 딸(선녀)이 깊은 밤에 내려와 목욕하는데, 동네 총각들이 칠선녀의 알몸을 훑쳐보았다는 전설⁵⁾과 결혼하여 늘그막 한 나이에 아들을 낳아 공부시키고 과거에 응시하였으나 낙방하자 아버지는 화병으로 돌아가시고, 어머니는 눈 봉사가 되니, 자식은 천제연 폭포에서 매일 기도를 드렸더니 어느날 번개불이 번쩍이고 하늘에서 요란한 소리를 치고는 ‘지극 정성으로 치성을 드린 것에 감동하여 어머니 눈을 뜨게 하여 주신다’는 말이 들리면서 어머니 눈이 뜨이고 오래도록 잘살았다는 전설⁶⁾이 전해지고 있다.

2. 선사유적(바위그늘유적)

중문천 하류 지점인 천제교 밑 절벽 중턱에 있다. 바위그늘유적은 고대인들이 임시 또는 오래도록 거주하였던 장소로 케이다. 앞쪽이 트여 있고 뒤에는 막혀 있는 동굴 유적과 유사하다. 도내에는 곳곳에 이러한 바위그늘유적이 산재해 있는데, 제주시 북촌 고두기 바위그늘유적이 대표적이다.

중문천 인근 색달동 해안가에도 바위그늘유적 2곳이 있다. 이 중 색달동 바위그늘유적 1호는 공유수면에서 3m정도의 높이에 위치하며 정서향으로 트여 있고, 입구는 아치형으로 되어 있다. 규모는 높이 170cm, 안쪽 길이 335cm로 입구에는 낙반석으로 막아 주고 있어 통로가 좁다. 바닥은 모래와 잔자갈, 바닷가돌 등으로 깔려 있다. 조사결과 토적층이 50cm이며 2개의 층으로 이루어졌고, 토기, 석기, 철기편, 각종패류, 동물뼈, 적갈색경

5) 최 열, 2012, 『옛 그림 따라 걷는 제주길』 129쪽

6) 제주도, 제주동양문화연구소, 2000, 『제주도마애명』 144쪽 중문마을회, 1996, 『불란지야 불씨지라』, 289~292쪽

질문토기편, 회청색경질토기편 등이 수습되었다⁷⁾.

3. 신앙유적

마을공동체를 하나로 결속하는 형태는 여러 가지가 있다. 예로부터 내려오는 전통의례 의식, 마을축제, 놀이 등이 있지만 마을의 안녕과 평안, 풍요를 기원하는 마을신앙도 있다. 본 글에서는 각 마을에 있는 신당(神堂)중 중문천에 접하고 있는 당에 대하여 논하기로 한다. 제주의 당은 산·숲·냇물·연못·언덕·물가·평지의 나무나 돌이 있는 곳에 있다⁸⁾. 조선시대에서 기록한 내용과 마찬가지로 현재 남아 있는 당(堂) 등도 구룡·전담·천변·해변·수림(잡목, 넝쿨)·암굴 등에 있다. 당이 있는 곳은 과거 마을이 설촌되면서부터 지금까지 하나의 성소로서 마을 사람들의 삶을 지탱하고 지속시켜 왔다고 할 수 있다⁹⁾. 중문천 하류에 있는 성천 사진 3. 할망당
포구에는 이러한 마을에서 모시는 신당이 있다.



1) 할망당(베릿내 개당)

중문천 하류 포구 동쪽 암벽과 불레낭 동산 밑의 조그만 궤에 있다. 어촌계 사무실이 있는 2층 건물과 접하여 있고, 원통 쇠 파이프를 뼈대로 천을 덮은 천막을 쳐서 당집을 만들었다. 어촌계의 젊은이들은 할망당이라고 부르며, 지금도 어촌계에서 모시고 있다.

제단은 동쪽 방향에 시멘트로 길게 3단으로 만들었다. 가운데 제단은 좌우 길이 132cm, 높이 41cm, 폭 63cm이다. 제단에는 지금도 사용하였던 양초들이 세워져 있다. 총길이는 430cm이다. 제단 뒤는 큰 암반들로 막혀 있고, 앞은 포구를 향한 서쪽으로 울타리를 만들었다. 울타리는 구멍이 난 바닷가 큰 돌을 이용하여 일렬로 100cm내외로 쌓았다. 입구는 135cm 정도로 트여 있고, 바닥은 시멘트로 다져져 있다. 천정은 가로지르는

7) 제주도, 2000, 『제주도문화재지정조사보고서』-중문·대포해안주상절리대, 9쪽

8) 『동국여지승람』 제주목 풍속조에 '제주풍속에 대체로 산·숲·냇물·연못·언덕·물가·평지의 나무나 돌이 있는 곳에 다 고루 신당을 만들어 놓는다' 라고 적혀 있다.

9) 제주교육박물관, 1999, 『마을공동체 신당을 찾아서』, 6쪽

쇠파이프에 지전들을 매달아 놓았는데, 지전은 종이와 천을 이용하였고, 색상은 주황색, 녹색, 하얀색으로 걸려 있다.

할망당 당신은 요왕국 벨금상님애기이며 신의 수는 여자로 1개이다. 신체는 신목으로 어부 및 짐수들의 안전을 수호하였다. 제일은 초하루와 보름 중 택일하였다. 제물은 돼지턱뼈로 성천동 어부와 짐너들이 다녔다¹⁰⁾.

2) 본향 두람지 켜당

두람지 켜당에 가는 길은 두 군데이다. 중문 마을시내에서 중문천 오른쪽 길을 따라 한라산 방향으로 올라가는 길과 중문마을 뒷길에서 천제교 사잇길해서 중문천 왼쪽길을 따라 가는 길이 있다.

천제교 밑에는 조그만 백구교가 있다. 켜당 위치가 백구교 남쪽 방향으로 30여m에 있다. 냇가에서는 오른쪽 암석들 사이에 바닥에서 2m여 높이에 있다. 입구 주변에는 큰 암석들이 놓여 있다. 예전에는 이 또한 바위그늘은거지로 사용되었을 것으로 추정한다. 중문천 옆 도로에서 돌로 계단이 놓여 있다. 일제강점기에 큰심방이 있었고 큰심방이 죽어서 작은심방(상만의 누님, 현재 87세)이 계속 이어오다가 나이가 들어 하지를 못한다고 한다¹¹⁾.

켄당 입구는 높이 180cm, 폭 384cm이며, 안쪽에는 동쪽 암벽을 붙여 제단을 돌과 시멘트를 남북으로 길게 만들었다. 규모는 길이 593cm, 폭 92cm, 높이 37cm이다. 오른쪽 부분에 시멘트로 사각 함을 만들어 안에 향을 놓거나 불을 피울 수 있도록 하였다. 크기는 높이 178cm, 폭 121cm, 깊이 79cm이며, 구멍은 세로 49cm, 가로 38cm이다. 이 시설은 1973년 9월 21일 준공 하였다고 새겨져 있다.

켄의 안 바닥에서 천정까지 높이는 21cm, 입구에서 직선거리로 뒤쪽 벽까지 670cm로



사진 4. 본향 두람지 켄당 입구 (좌 : 원경, 가운데 : 입구, 우 : 내부 켄당)

10) 제주특별자치도, (사)제주전통문화연구소, 2009, 『제주신당조사 -서귀포시권-』, 490쪽

11) 박영규 할머니, 85세, 중문리 거주(켄당 주변 거주)

넓은 공간이다. 지금은 나무 가지로 바닥을 깔아 놓여 있다. 신위는 남녀 4위이며, 제일은 정월 보름, 팔월보름, 제물로는 사발메2, 보시메 2, 관복이다. 단골은 중문리 주민들이다¹²⁾.

3) 싱거물당¹³⁾

싱거물당은 베릿내당이라고도 하며, 중문천 하류 성천포 동쪽의 해녀식당 동쪽 방향 10여m 바닷가에 위치한다. 씨에스호텔엔리조트 내 도로를 통하여 바닷가쪽으로 내려가면 도달할 수 있다. 바닷가로 내려가는 길 옆 볼레낭으로 덮혀 있다. 지금은 볼레낭이 심어져 있고 그 안에는 깨끗하게 청소되어 있다.



사진 5. 싱거물당

싱거물은 천제연에서 물을 당겨 내려오는 물로 일제강점기에 사용하였다. 그 옆 바위 밑에 당을 만들었다. 단골로는 성산읍 난산리에서 온 중문 마을 사람들과 물질하는 줌녀들이 다니다가 1950년대 물이 음용수로 적합하지 않고, 당을 모시는 무당이 사망하자 사용을 하지 않고 있다. 제일은 음력 정월 보름과 팔월 보름이다.

4. 민속문화재

사람들과 밀접한 생활자료로는 의식주, 생산산업, 사회구조, 민간신앙에 관련된 도구들이 많다. 중문천 주위에 있는 자료로는 돌하르방, 방사탑, 정주석 등이 있다.

1) 돌하르방

돌하르방은 제주특별자치도 민속자료 제2호로 총 45기가 1971년 8월 25일 지정되었다. 돌하르방은 1754년(영조 30) 김몽규(金夢奎) 목사에 의하여 세워졌다고 하고 있다¹⁴⁾.

12) 제주특별자치도, (사)제주전통문화연구소, 2009, 『제주신당조사 -서귀포시권-』, 488쪽

13) 중문마을회, 1996, 『불란지야 불씨지라』, 370쪽

14) 담수계, 1953, 『중보탐라지』



사진 6. 제주목 돌하르방



사진 7. 대정현 돌하르방



사진 8. 정의현 돌하르방

돌하르방은 명칭이 여러 가지로 불린다. 돌하르방을 만들게 된 것은 숙종과 영조 연간에 제주에 흉년이 자주 들어서 굶주려 죽고, 전염병으로 죽은 수가 매우 많았다. 그 중에는 원귀(冤鬼)가 되어서, 사람들을 괴롭힌다 하여 삼문(동,서,남)밖에 돌하르방을 만들어 세우고 원귀가 드나들지 못하도록 하였다. 세운 곳이 제주목, 대정현, 정의현 성문 앞이다. 돌하르방의 크기는 각 성별로 제주성 157~238cm, 정의성 120~177cm, 대정성 108~146cm로 제주성이 비교적 큰 편이다¹⁵⁾. 3개 지역의 돌하르방의 크기도 다르지만 형태도 다르다. 현대에 이르러 많은 이들이 돌하르방을 제작 설치하고 작게 만들어 상품화하고 있다.



사진 9. 돌하르방(위: 선임교 서쪽, 아래: 선임교 동쪽)

15) 김정선, 2009, 돌하르방의 조형적 특징 검토, 제주특별자치도문화진흥본부 공립박물관 학예조사연구보고서 1: 82~96

중문천에는 색달동 관광단지 방향으로 선임교 입구에 새롭게 설치 되었다. 돌하르방 형태는 제주목과 같다. 다공질 현무암으로 크기는 높이 226cm, 넓이 94cm, 두께 73cm, 다른 하나는 높이 231cm, 넓이 98cm, 두께 71cm 이다. 매표소 입구에 세워져 있어 입구를 지키는 수호신으로 사용된 것 같다.

선임교 동쪽 입구에는 작은 돌하르방 두 기가 세워져 있다. 돌하르방의 크기는 오른쪽 크기는 높이 144cm, 너비 58cm, 폭 48cm, 받침돌 높이 32cm, 지름 94cm, 왼쪽 크기는 높이 159cm, 너비 57cm, 폭 48cm이며, 받침돌은 높이 31cm, 지름 49cm이다. 아쉬운 것은 중문동과 색달동 마을이 대정현에 속하였던 지역으로 대정현에 세워졌던 돌하르방의 모습으로 재현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2) 정주석

정주석은 제주도의 전통 미풍양속인 삼다·삼무¹⁶⁾의 구성요소로서, 아직은 문화재로 지정 되지는 않았으며, 도둑이 없는 미풍양속의 하나로 이어져 오고 있다. 중문천에서도 정주석들이 세워져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선임교 입구인 색달동 방향에서 돌하르방 수문장과 함께 통로에 설치되어 있다. 다공질현무암으로 자연스러움을 지닌 정주석으로써 크기는 한쪽이 폭 52cm, 높이 132cm, 두께 15cm, 맞은편이 폭 50cm, 높이 119cm, 두께 16cm이다. 그 외 새로 제작한 휴게 의자 받침 정주석(크기 44 x 59 x 18cm)과 선임교 동쪽방향에 있는 정주석은 새로 16기를 제작하여 인제책으로 사용하고 있다.

정주석은 집안에 들어오고 나가는 대문 역할을 하는 것으로, 주인이 집안에 있고 없음을 무언으로 말해주는 매개체이다. 정주석이 있으므로 거지와 도둑이 없다는 것을 의미하고, 제주인의 인심이 너그러움을 보여주는 것이라 하겠다. 비록 정주석의 기원은 알 수 없으나, 사람이 촌락을 이루고 이웃간에 왕래가 있었던 시절부터 시원이라고 할 수 있다.



사진 10. 정주석

16) 삼다: 돌, 바람, 여자가 많다. 삼무: 대문, 도둑, 거지가 없다는 것을 말한다.



사진 11. 방사탑

그러면 마을이 형성되는 시기부터 사용하였을 것이라고 추정된다. 앞으로 정주석의 역할과 기능에 대한 많은 연구가 있어야 할 것이다.

3) 방사탑

도내에는 마을마다 원뿔형의 돌탑이 세워져 있는데, 이를 ‘방사탑’이라 한다. 마을의 재앙을 방지하기 위하여 악귀가 들어오는 방향에 방사탑을 세워 나쁜 기운이 들어오는 것을 막았다.

제주자치도에서는 1995년 8월 26일, 제주시 도두동 몰레물 방사탑, 한경면 용수리 포구 방사탑 등 방사탑 17기를 제주특별자치도 민속문화재 제8호로 지정하여 관리하고 있다. 방사탑의 명칭도 지역별로 거옥대, 극대, 답 등으로 불리는데, 솟탑, 암탑으로 두 기를 만들어 세웠다. 솟탑은 위쪽 면에 돌하르방이나 새의 형상의 돌을 세웠고, 암탑은 윗면이 가운데로 비스듬하게 내려갔다. 현재에는 마을에서 조형물로 만들어 세우기도 한다.

중문천제연 폭포 주차장 광장에도 원뿔형으로 만든 솟탑을 세웠다. 이는 4·3기념탑과 연관이 있는 듯하다. 1985년에 광장을 정비하면서 한국관광공사에서 세웠다고 하는데, 규모는 높이 283cm, 바닥 지름 237cm이며, 받침은 깊이 12cm, 높이가 18cm이다. 방사탑 위에는 30여 cm 높이의 새모양 돌을 놓았다.



사진 12. 4·3기념비

5. 역사유적

1) 천제연 마애명(磨崖銘)¹⁷⁾

‘마애명’은 자연적인 바위나 절벽에 글자를 새겨 넣은 것을 말한다. 과거 제주도에 파견된 목사 등 관리나 유배온 선비들이 경치가 좋은 곳을 찾아 유람하였다.

조선시대 초기에 제주도는 제주목, 정의현, 대정현으로 행정구역이 나뉘었다. 당시 제주에 파견된 목사 등 관리들은 맡은 바 임무에 충실하면서, 경관이 좋은 장소를 찾아 선비로서 풍류를 만끽하고 그 때 흥취를 바위나 절벽에 새겨 남겨 놓았다. 이러한 흔적이 남아 있는 장소로 제주시 관내 한라산 백록담 7, 오라동 들렁귀 56, 오현단 2, 용연 7, 오라천 1, 탐라계곡 2, 용수리 1, 납읍리 금산공원 1, 광령리 1, 김녕리 1이며, 서귀포시 관내는 효돈천 1, 정방폭포 2, 천제연 1, 산방굴사 9, 창천리(창고천) 1, 위미리 1, 신천리 1 등 총 95개¹⁸⁾가 아직도 선명히 남아 있다. 그 중 중문천 제1폭포 서쪽 주상절리 중간쯤 벽에는 조선시대 임관주¹⁹⁾의 쇠구마애명이 있다. 쇠구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天地淵開大瀑流 移來石築壁深湫
空中負箭芻人步 第一奇觀此射嶼
丁亥 季秋

사진 13. 천제연 마애명

큰 폭포가 흐르게 천지연을 열어 놓고
돌을 옮겨다 벽을 쌓아 못이 깊어졌네
공중에 화살을 진 짚 허수아비 걸어가니
이 곳의 활쏘기가 제일가는 볼거리 일세
정해년(1767) 늦가을²⁰⁾

17) 마애명이라는 의미는 사전에는 나오지 않는 단어이다. 우리나라에는 암각화와 마애불이 있다. 암석에 동물상, 인물상 및 부처상 등을 그려 넣은 유적들이 많다.

18) 백종진, 2013, 『조선후기 제주지역 마애석각 연구』, 제주대학교 석사학위논문 4쪽

19) 임관주의 쇠구마애명은 천제연 뿐만 아니라 한라산 정상과 제주시 용담동 용연, 안덕면 창천리에도 있다. 『제주사인명사전』 601~602쪽(제주문화원, 2002, 화신문고)에 의하면 임관주는 1732년(영조 8)에 태어났으며 죽은 때는 미상이다. 제주에 유배온 문신으로 자는 숙빈, 본관은 풍천이다. 1756년(영조32) 문과에 병과로 급제하였다. 1767년 6월에 대정현 창천으로 유배되었다가 1767년 9월 5일 70세 나이에 방면되었다.

20) 제주도, 제주동양문화연구소, 2000, 『濟州道 磨崖銘』 144~146쪽, 경신인쇄사.

『탐라순력도』²¹⁾〈현폭사후〉에 나오는 그림을 연상하여 보면, 폭포 양쪽에서 한쪽은 화살을 쏘고 한쪽에는 과녁이 있으며 쏜 화살을 줍는 사람들이 보인다. 그림에는 폭포 양쪽에 소나무가 그려져 있으며 어른쪽 바위에는 천막과 맛배 지붕을 한 집들이 보인다. 중문 천제연은 천혜의 자연경관중 하나로 지금도 많은 관광객들이 찾고 있다.

폭포를 가까이서 구경할 수 있도록 폭포 밑에까지 나무로 계단을 만들고 거기에서 떨어지는 폭포를 구경하면서 사진을 찍을 수 있게 하였으며, 물가까지는 가지 못하도록 되어있다. 마애명을 직접 볼 수 없는 현실로 아쉬울 따름이다. 2011년 3월 15일 국제로타리 366지구 중문로타리클럽에서 마애명을 볼 수 있도록 관광지 입구에 하얀 대리석으로 기념석을 세웠다.

2) 농경 경작을 위한 관개도수로

도내에 농경에 이용하기 위하여 물을 끌어오는 수로를 만들었던 곳은 김광중²²⁾이 공사를 한 안덕면 화순리 화순천과 채구석²³⁾에 의해 만들어진 서귀포시 중문동 천제연 수리답 수로 등 두 군데²⁴⁾가 있다.



사진 14. 관개도수로

천제연 수리답은 채구석이 늘그막에 중문리에 거주하면서 1908년에 천제연의 물을 농업용수로 사용하기 위하여 2~3리에 이르는 성천봉 아래로 천제연 동쪽 절벽을 따라 물길을 시멘트로 만들었다. 이렇게 만든 수로는 5만 여평에 이르러 논밭을 일구고 경작할 수 있도록 하는데 이용되었다. 이 수리 사업은 호근리 이재하와 대포리 이태옥이 함께 협력했다. 이러한 공적을 기리기 위하여 중문 천제연에 1959년 8월에 기념비석을 세웠는데, 〈통정대부대정군수 채구석기적비(通政大夫大靜郡守 蔡龜錫 紀念碑)라 새겨 넣었다.

중문 관광단지지를 조성하면서 수리답은 소멸 되어, 지금은 그 흔적을 볼 수 없으나, 당시 수로를 복원해 놓아 과거의 흔적은 조금은 엿볼 수 있다.

21) 『耽羅巡歷圖』는 1701년~1702년 제주목사 이형상에 의하여 그려진 화첩이다. 1979년 2월 보물 제652-6호로 지정되었다. 크기는 가로 41.5cm × 51.5cm이다. 제주목사 겸 병마수군절제사 이형상(李衡祥)이 1702년(숙종 28) 한 해 동안 제주도 각 고을을 순시하며 거행했던 여러 행사 장면을 기록한 채색 화첩이다. 그림은 목사를 수행하는 화공 김남길(金南吉)이 그렸다. 총 41폭으로 이루어졌다.

22) 1792년(정조16) 제주시 한경면 저지리에서 태어났다. 1875년(고종12) 84세에 사망하였다.

23) 1850년(철종 1)에 태어나 1920년에 돌아가셨다. 제주시 한림리 출신으로 본관은 평강, 자는 대너, 호는 초은으로 1879년(고종 16) 진사시에 합격하였다. 1893(고종30) 11월에 제주관관으로 부임하였고, 1895년 1월 15일 대정군수로 있다가 1898년(광무 2) 3월에 이임하였다. 1899년 7월 27일 대정군수로 재차 임명되었다가 1901년 4월 24일 이계수란에 연루되어 파면되었다.

24) 제주발전연구원제주학센터, 2013, 『제주통사』 231~2쪽, 하나출판.

6. 건강의 거리

100세 시대를 바라보고 있는 오늘날에도 그 누구도 건강에 대한 자신은 없다. 그래서 1990년대 이후 많은 사람들이 건강을 위하여 마을 주변의 넓은 공터 또는 운동장 등 걷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걷기 열풍으로 각 마을에서는 걸을 수 있는 길을 만들고, 일부는 산행에 도전하고 심지어는 타시·도까지 원정을 가면서 걷기 열풍을 이어가고 있다.



사진 15. 건강거리

행정기관에서도 한라산 등반, 숲길, 마로, 오름 등반, 한라산 둘레길, 올레길 등을 조성해 놓고, 건강한 몸과 자연 그리고 문화를 보고 느끼면서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여기에서는 중문천과 관련된 올레길, 한라산 둘레길에 대하여 알아보겠다.

1) 건강거리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26조의 규정에 의하여 흡연으로 인한 도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하고 깨끗한 환경과 거리를 조성하여 삶의 질 향상을 통한 건강도시 제주를 건설하는 것을 목표로 「제주자치도내 금연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기준」을 조례(조례 제201호, 2007. 3. 7.)로 지정 운영하고 있다.

이에 따라 중문천 천제연 폭포 인근 지역을 금연구역과 흡연구역으로 구분하여 관리하고 있다. 건강거리 표시 입간판을 설치하고 야외 운동기기를 설치하였는데, 평행봉, 낮은 철봉, 온몸역기내리기, 옆과도타기, 윗몸일으키기, 온몸허리돌리기 등 14개가 있다.

2) 올레길

원래 ‘올레’의 의미는 제주어로 한길(신작로)에서 집 대문으로 들어가는 9~12m의 좁은 도로를 말한다. (사)제주 올레에서 스페인 산티아고 도보 순례길(800km)에 착안하여 걸으면서 제주의 자연과 문화를 느끼고, 건강을 증진할 수 있는 걷는 길을 ‘올레길’이라고 명명하고, 2007년 9월 2일 제주 올레 제1코스를 개척한 이래 제주도를 한바퀴 도는 정규 코스와 중산간 및 제주의 작은 섬을 도는 알파 코스 등 2014년 1월 현재 총 26개 코스를



사진 16. 올레길을 걷는 사람들

개발해 놓고 있다.

그 중 중문천 하류를 거쳐가는 코스가 제8코스로, 서귀포시 월평마을에서 대평포구까지 19.2km이다. 이 코스는 해안선 따라 걸으면서 중문 천제연 폭포와 주상절리, 제주바다 해안, 오름 등을 둘러보는 재미를 더하는 곳이다.

3) 한라산둘레길

건강걷기의 하나인 둘레길 걷기에는 전국적으로 지리산, 북한산, 무학산 우포늪 둘레길이 조성되어 각 고장의 문화를 알리면서 운영되고 있다.

도내에서는 한라산 탐방객이 증가함에 따라 분산을 목적으로 한라산 해발 600~800m 사이 국유림 지역을 중심으로 80km 조성을 목표로 걷는 길을 조성하고 있다.



사진 17. 한라산둘레길

한라산 둘레길은 일제강점기에 일본군의 병참도로로 활용되었던 길이다. 해방 이후 한라산 숲에 조성된 표고버섯 재배장에서 생산되는 작물을 실어 나르는 통로로 활용되고 있으며, 한라산을 빙 둘러가며 머리띠 두르듯이 도로가 형성되어 있어 일명 머리띠를 뜻하는 일본어로 ‘하치마키’ 도로라고 불리기도 한다²⁵⁾.

한라산 둘레길은 우선 2010년 서귀포시 하원동 무오법정사에서 돈네코 시오름까지 9km 조성하였고, 2단계로 1100도로 거린사슴 전망대에서 안덕면 돌오름까지 5.6km를 조성하였다. 2단계 한라산 둘레길이 중문천 상류에 있는 녹하지악 부근에서 가로 지르고 있다.

둘레길은 숲속에 나 있는 길로 졸참나무와 삼나무들 사이를 걷는 흙길이며, 걸으면서 부근에 자연석, 표고버섯농장, 산록계곡, 꽃자왈 등을 볼 수 있고, 마음과 몸을 힐링하는 효과도 거둘 수 있다. 앞으로 한라산 둘레길에 치유의 숲과 명상의 숲을 계속하여 조성함으로써 제주를 다시 찾게 하는 명소가 될 것이다.

25) 한라산국립공원, 2012, 『한라산』, 184쪽

7. 칠선녀 축제

단순히 사전적 의미의 축제는 ‘축하하여 별이는 큰 규모의 행사’을 말하고 있고, 문학 비평용어사전에 의하면 ‘개인 또는 공동체에 특별한 의미가 있거나 결속력을 주는 사건이나 시기를 기념하여 의식을 행하는 행위’를 뜻하고 있다. 이러한 축제가 전국 각 지역에서 지역 활성화 방안으로 특색 있게 이루어지고 있다. 지역축제는 각 지역사회 현안 과제, 지역사회 내부의 정치적 갈등, 국가적 현안 등과 관련되어 상당히 민감하게 반응하는 문화적 현상에 속한다²⁶⁾.

2013년에 전국적으로 개최된 축제가 문화체육관광부 통계에 의하면 752개가 된다²⁷⁾. 하지만 이보다 더 많은 축제가 개최되었을 것으로 본다. 제주에서만도 통계에는 28개로 되어 있지만 도 전역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크고 작은 축제를 모두 합산하면 70여 개가 넘고 있다.

최근의 지역축제는 생태, 환경, 특산물을 주제로 하여 지역적 특성을 드러내는 경우가 많다. 본고에서는 중문천과 연계된 천제연폭포의 칠선녀 전설을 테마로 하여 개최하여졌던 칠선녀축제에 대하여 알아보겠다.

1) 회고

지역 축제는 그 지방의 전통이나 문화를 계승, 발전시키면서 동시에 외부에 지역 문화의 특성과 우수성을 알리면서 부수적으로 경제적 효과를 얻기 위해 매년 혹은 몇 년을 주기로 정기적으로 열리는 행사를 말한다.

도내에서는 들불축제, 벚꽃축제, 자리돔축제, 방어축제 등 2013년 11월 기준하여 83개 축제



사진 18. 선임교

26) 이은정, 2012, 축제의 전승과 지역정체성(옛 자인형지역을 중심으로), 영남대학교박사학위논문 28쪽.

27) 2013년 1월 31일 현재 17개시도에서 제출한 자료에 의한 것으로 752개는 서울 108, 부산 41, 대구 35, 인천 29, 광주 8, 대전 18, 울산 11, 세종 4, 경기 76, 충북 53, 충남 64, 전북 54, 전남 38, 경북 41, 경남 70, 제주 28개이다.

가 개최되고 있다. 현재는 폐지된 천제연 전설을 테마로 하였던 중문동 ‘칠선녀축제’는 민속문화를 계승하는 의미로 ‘전설과 신비, 꿈의 대향연’을 테마로 1995년 4월 1일부터 2일까지 2일간 서귀포시 중문동 천제연폭포 광장에서 처음으로 열렸다.

서귀포시 주최로 선녀 7명이 천제연폭포에 내려와 목욕을 하고 올라가는 전설을 재현해 보이며 해녀무용, 부채춤 등 향토무용 공연을 펼쳤다. 첫날 식전 행사로 가족동요부르기, 관광중사원 장기자랑 등 경연대회가 벌어지며, 둘째날에는 칠선녀 카퍼레이드와 거리축제가 열렸다.²⁸⁾

제3회는 ‘97 제주 봄 대축제’를 테마로 1997년 5월 3일(토)~6일(화)까지 중문청년회의소에서 주최하고 제주도, 서귀포시, 서귀포시의회, 서귀포경찰서, 제주도서귀포교육청, KBS제주방송총국, 한국관광공사제주지사 등의 후원으로 중문관광단지 천제연폭포 일원에서 확대하여 열렸다. 이렇게 매년 잘 이어지면서 제10회 축제를 2004년 5월 14일~5월 16일 사이에 개최하였는데, 이때가 마지막이 될 줄이야 어떻게 알았겠는가?

제10회 축제 내용은 참여형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첫째날 길놀이, 시가행진, 경찰악대 공연, 칠선녀제, 불꽃놀이, 한밤의 영화극장. 둘째날은 시립관현악단 공연, 관객참여 노래방, 중국기예단 공연. 마지막 날에는 도전노래방, 어린이 칠선녀선발대회 등으로 성황리에 이루어졌었다. 하지만 아쉽게도 10회를 마지막으로 볼 수 없는 축제가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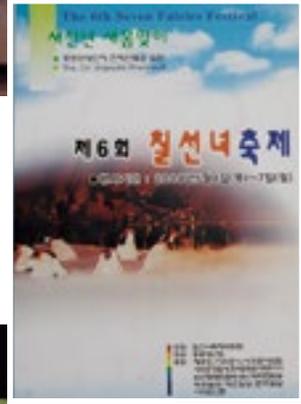


사진 19. 칠선녀 축제

28) 동아일보 1999년 3월 30일 기사(제주: 임재영)

2) 전망

지방자치제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1990년대 이후 각 지방자치단체 중심의 지역문화축제가 활성화되어 최근에는 한 해에 1,000여개가 넘는 축제가 국내에서 열리고 있다. 지역 축제는 다른 문화예술행사에 비해 각각의 지역만이 갖고 있는 문화적, 경제적, 지형적 특성을 외부적으로 홍보하기 쉽고 지역경제에 수익성도 가져다 준다는 인식하에 모든 지방자치단체마다 앞 다투어 축제의 장을 만들어 가고 있는 것이다.

지방 곳곳에서 경쟁적으로 치러지고 있는 유사한 수많은 축제에 대하여 차가운 시선과 비판의 목소리 또한 없지 않다. 과연 주민들의 귀중한 세금으로 만들어지고 있는 지역축제가 지역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만족 하에 이뤄짐으로써 주민들의 문화적 삶의 향상에 얼마나 도움을 주고 있느냐는 것이다.

칠선녀 축제는 전국적으로 몇 군데에서 계속하여 행하고 있다. ‘부곡온천 발견 40주년 기념 및 제20회 부곡온천축제’(경남 창녕군)에서 부곡온천 관광특구 내 온정각에서 칠선녀들이 온정제에 올릴 온천수를 취수하는 축제를 비롯하여, ‘인천 강화 개천대축제 칠선녀 성화채화’, ‘고려산 진달래축제’, ‘금산 인삼축제’ 등이 있다.

중문동에서는 축제위원회를 재결성하여 타시도의 칠선녀축제와 연결하여 활성화 하는 방안 등 우수한 프로그램을 공유하는 노력을 기울이고, 그런 연후에 축제에 사용하였던 칠선녀를 배경으로 무대가 설치되었던 그 장식물이 아직도 중문동 방향의 천제연 주차장 광장에 존치되어 있으므로 이를 이용하여 칠선녀 축제를 되살려 다시 한 번 축제의 봄을 일으킬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나가야 할 것이다.

8. 교육

중문천과 교육적으로 관련된 사항으로는, 첫째로, 수려한 자연환경에 연유된 세계적인 3단 폭포로 이어진 제1폭포의 경관을 보는 학업이다. 도내·외 각급학교에서 일제강점기부터 1980년대까지만 하여도 수학여행의 일번지로써 제주특별자치도의 볼거리 관광상품의 하나로 자리 잡고 있었다.

인근학교인 중문과 색달 마을에서는 어린 학생들이 소풍 장소로, 과거로 거슬러서 조선시대 서당에서도 한 여름 피서지로 중문천 계곡을 찾았다고 한다.

1) 한문 서당교육

제주도의 서당교육은 언제 어디에서부터 시작하였는지는 아직까지 알려져 있지 않다. 하지만 옛 기록²⁹⁾에 의하면 1736년(영조12) 제주목 동문 안에 삼천서당을 세웠다는 기록

이 전해지고 있다. 서당교육은 근대교육기관이 설립되기 이전 유일한 초등교육기관으로써 오랫동안 일반 민중들을 위한 교육의 한 부분을 맡고 있었다. 이름자 석자와 기초 한문을 배우기 위하여 서당에 다녔고, 서당에서는 한학을 주로 교육시켰다.

(1) 색달마을 서당

색달 마을에는 1890년에 대정읍 보성리 강안제(姜安濟) 훈장으로 10여 년간, 70여명의 제자를 두었으며, 1930년대부터 감수동에서 수산 강상백(姜祥佰), 1937년 화순리 강사종(姜師宗)이 한학을 하였고, 서당에서는 돼지털로 만든 붓과 목판(나무 널빤지), 물 종이, 형짚(목판에 쓴 글씨를 지울 용도) 등을 사용하였다.³⁰⁾

(2) 중문동 서당

중문동에는 무명서당으로, 고경두(高京斗) 훈장이 양자와 손자들을 가르치기 위하여 1925년 창설하였고, 자신의 건강으로 인하여 1932년 폐설하였다. 입학 연령은 7~15세로 재적학생 수가 13~15명으로 최연소자는 7세, 최연장자는 15세로 2~3년 수학하였다.³¹⁾

2) 중문초등학교색달분교장 폐교

색달 마을에는 한라산 중턱인 중산간에 중문초등학교색달분교장이 있었다. 분교장은 1962년 천서동이 재건되고 뒤이어 군남동이 재건되면서 어린이들의 교육 문제가 대두되자 1969년 9월 1일 서귀포시 색달동 755번지에 설립하였다.

개교 당시 아동 수는 47명이었다³²⁾. 그 후 산업화와 가족계획에 따라 아동 수가 격감하여 1989년 3월 1일 폐교하였다. 여기에 다니던 어린이 1~2학년생은 중문초등학교에 다니게 되었다. 도시로 이농현상이 한창이던 1980년대까지 20여 년 동안 마을에서 주민들이 동고동락하였던 자리였던 만큼 어린이들이 줄어들어 폐교된 사실에는 많은 아쉬움이 있다. 하지만 어린이들에게 질 높은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좀 더 좋은 교육환경과 시설을 갖춘 학교로 통합하여 다니도록 하는 것으로 위안을 삼았다.

폐교된 학교부지에는 학교가 있었음을 알리는 표지석을 설치하였고, 현재는 중문동 관광단지내 하얏트리젠시호텔 직원용 기숙사가 지어져 있다.

29) 이원진, 『담라지』 등

30) 서귀포시 색달동, 1996, 『색달마을지』, 189쪽

31) 제주도교육연구원, 1996, 『제주의 서당교육』, 164쪽.

32) 서귀포시 색달동, 1996, 『색달마을지』, 188쪽.

【배움의 옛터】 - 표지석

이곳은 중문초등학교 색달분교장의 배움의 옛터입니다. 천서동과 군남동 학구민의 불타는 교육열과 정성으로 서귀포시 색달동 755번지의 부지 1993평을 마련하여 1968. 12. 13. 분교장 설립 인가를 받고 1969. 3. 1. 개교하여 20년간 배움의 꽃을 피우다가 졸업생 총14회에 55명을 내보내는 동안 학교에 다닐 어린이가 줄어들어 아쉽게도 1989. 3. 1. 폐교하여 중문국민학교에 통합되었습니다. 1989. 6. 19. 부지 및 건물을 매각하여 중문초등학교 급식시설 건물 585㎡ 및 기구를 완비하여 어린이 복지 시설로 활용중입니다. 이에 이곳이 오랫동안 배움의 불을 밝혔던 자리임을 길이 알리기 위하여 이 비를 세웁니다. 1994. 11.³³⁾



사진 20. 현재 분교장 터 모습



사진 21. 분교장의 옛 터 모습



사진 22. 표지석

33) 제주교육박물관, 2012, 제주도내 폐교 교육자료 특별전 『옛 학교의 흔적을 찾아서』, 15-17쪽

3) 중문동 옛 교육

(1) 개성학교

중문동에는 4년제 사립학교인 개성학교가 중문동 1699번지에 있었다. 교육을 통한 인재양성에 뜻을 두고 이재교(李在喬)에 의해 1905년 개설되었다. 중문출신 이기항(이기항)을 교사로 애국사상을 고취하는 교육을 실시하였다. 학생은 40여명으로 신학문을 공부하였다³⁴⁾. 1914년 이후 을사늑약으로 학교가 폐설되었다.

(2) 진수의숙(進修義塾)

1916년 중문동 1621번지(백구사거리) 황씨네 집에 세워졌다가 학생수가 늘어나자 중문동2078번지(현 우체국 뒤)로 옮겼다. 4년제로 설립자는 중문 출신 이기언(李基彦)이며, 교사로는 도순 출신 이태춘(李泰春), 중문출신 고유만, 이갑출, 난산 출신 김원옥, 대포 출신 김옥현, 회수 출신 박찬일, 모슬포 출신 문달진이 있었다. 교과목은 도의, 국어, 산술, 역사, 과학, 도화, 음악, 체육, 일본어, 일본역사 등으로 한국민족사와 사상교육은 금지시켰다. 학생 수는 30~40명 정도이고, 여학생도 2~3명이었다. 입학 나이는 8세~15세로 1년에 1번 운동회와 학예회를 개최하였다. 1927년 5월 3일 좌면 공립보통학교가 개교가 되면서 문을 닫았다³⁵⁾.

4) 중문동 현대학교

현대식 학교는 색달동과 중문동 시내에 중문 초·중·고교가 있다. 그 외 교육시설로는 어린이집이 있으나 여기에서는 중문에 있는 학교에 대하여 간략하게 소개 하도록 한다.

(1) 중문초등학교

(가) 연혁

- 1927년 3월 1일 설립 인가(좌면 공립보통학교)
- 1927년 5월 3일 개교(천제연 동쪽 중문동 1489번지)
- 1941년 2월 25일 교지 이전(현 위치: 중문동 1984번지)
- 1955년 11월 13일 화재 발생(본관 9개 교실 및 부속건물 전소)
- 1996년 3월 1일 교명 변경(중문초등학교)
- 2004년 12월 18일 학교도서관 개관
- 2013년 3월 1일 20학급 인가

34) 중문초등학교총동문회, 2006, 『중문교 80년사』, 180쪽.

35) 중문초등학교총동문회, 앞의 책 185쪽.

(나) 시설

부지	교사	체육장	학교림	비고
16,551㎡	5,964㎡	7,980㎡	26,000㎡	

(다) 학생수

(2013. 03. 01. 현재)

학년	1	2	3	4	5	6	특수학급	계
학급수	3	3	3	3	3	4	1	20(1)
학생수	남	51	54	44	50	45	55	299
	여	40	35	46	41	46	55	(2) 263
계		91	89	90	91	91	110	(2) 562

(라) 교육목표

- 바른 심성으로 큰 꿈을 가지고 스스로 공부하는 건강한 어린이를 기른다.

(마) 경영중점

- 정직을 바탕으로 하는 기본생활 교육중점
- 꿈을 실현하기 위한 자기 주도적 학습력 배양
- 배려와 나눔의 실천교육
- 건강한 생활을 위한 체육교육 강화

(2) 중문중학교

(가) 연혁

- 1945년 10월 4일 중문중학원 개원
- 1950년 4월 2일 부문중학교 4년제 8학급 인가
- 1951년 9월 1일 중문중학교 3년제 6학급 변경 인가(교명변경)
- 1987년 3월 1일 특수학급 설치
- 2013년 3월 4일 신입생 191명 입학

(나) 시설

부지	교사대지	운동장	체육관	급식소	생명의 숲	비고
24,227㎡	10,714㎡	8,901㎡	863㎡	449㎡	3,300㎡	

(다) 학생수

(2013. 03. 01. 현재)

학년		1	2	3	특수학급	계
학급수		6	5	5	1	17
학생수	남	101(0)	82(0)	79(1)	(1)	262
	여	90(1)	91(1)	98(2)	(4)	279
계		191	173	177	(5)	541

(라) 교육목표

- 글로벌 시대를 선도할 진취적이고 창의적인 인재육성

(마) 특색교육활동

- 어울려 배우는 문화교실
- 마음열고 미래로 나가는 책 읽기

(3) 중문고등학교

(가) 연혁

- 1966년 4월 10일 중문원예고등학교(원예6학급) 개교
- 1972년 9월 4일 교명 변경(중문종합고등학교)
- 1984년 2월 4일 교사 이전(일주서로 570번길 19(대포동))
- 1990년 3월 1일 교명 변경(중문상업고등학교)
- 2011년 3월 1일 교명 변경(중문고등학교)
- 2012년 2월 8일 졸업식(128명)

(나) 시설

구분	보통교실	교장실	교무실	행정실	과학실	전산실	전산관리실	학년교무실	교육정보실	의료정보실습실	종합간호실습실	기초간호실습실	관광어학실	어학실	음악실	도서관	학습도움실
실수	20	1	1	1	1	3	2	3	1	1	1	1	1	1	1	1	2
구분	방송실	보건실	상담실	간호실습탈의실	학생회실	급식소	학년탈의실	인쇄실	여교사휴게실	병원코디실습실	체육관	수영장	잔디운동장	화장실	창고	기계실	문서과
실수	1	1	1	1	1	1	3	1	1	1	1	1		10	1	1	3

※ 잔디운동장 13,001㎡

(다) 학생수

(2013. 03. 01. 현재)

학년	1			2			3			소계				합계	
	보건 간호 호	의료 관광 광	의료 정보 보	특 수											
학급수	2	2	2	2	2	2	2	2	2	6	6	6	2	20	
학 생 수	남	25	22	37	23	20	37	16	26	38	64	68	112	(17)	244
	여	41	43	30	43	46	25	43	34	20	127	124	75	(6)	325
	계	66	65	67	66	66	62	59	60	58	191	192	187	(23)	
	합계	198			194			177			569				

(라) 교육목표

- 올바른 품성을 지닌 보건·의료·정보 전문 인재 양성

(마) 학교경영 구현

- 신뢰와 만족을 주는 학교 : 믿음과 도움으로 함께 하는 학부모
- 즐거움이 가득한 교실, 꿈이 영글어 가는 학교 : 소질과 꿈을 키우는 슬기로운 학생
- 의욕과 보람으로 신명나게 가르치는 행복한 학교 : 사람과 열정으로 보람을 찾는 교사

IV 나가며

‘2006년도 한국방문의 해’를 기점으로 제주를 찾는 국내·외 방문객들이 점차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렇게 점차 증가하는 방문객을 위하여 볼거리, 먹거리, 즐길거리를 다양하게 차려놓아야 될 것이다. 찾아 온 방문객들이 ‘쉬멍, 놀멍, 먹그멍, 보멍, 드르멍³⁶⁾ 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할 것이다.

현대는 일만을 해야 하는 시대가 아니다. 삶의 질을 높이고, 재충전을 위한 즐길거리를 찾고, 문화의 향기를 찾는 시대이다. 주 5일제를 시행하면서 제주를 찾는 방문객 수도 이제 1,000만 명을 넘어서고 있다³⁷⁾. 이들이 다시 찾는 제주도가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볼거리를 창조해야 한다.

중문천은 조사를 하면 할수록 역사와 자연이 종합적으로 어우러져 매력적인 곳이라고 생각하면서 조그만 제안을 하고자 한다.

첫째, 중문천에는 천제연이라는 폭포 뿐만 아니라 다양한 문화자원들이 산재해 있다. 이 자원을 한데로 모을 수 있는 전시관을 건립하였으면 한다. 역사와 문화가 생동하는 관광지로 거듭 났으면 한다.

둘째, 중문천 하류에는 볼거리, 즐길거리가 어느 정도 마련되어 있다. 하지만 상류에는 빈약하다. 하류에는 어장 체험, 수상레저, 올레길 코스 등 여러 가지 볼거리와 즐길거리 등이 운영되고 있는데, 새롭고 단정하게 재정비를 하였으면 한다. 즉 사업장으로 건물을 짓고 볼거리와 즐길거리에 먹거리(향토음식)를 보강하는 단위로 운영하는 타운을 건설하였으면 한다. 지금은 너무 관광단지의 영향을 얻으려는 소극적 자세보다는 새롭게 다시 찾아올 수 있는 지역으로 개발이 시급하다. 상류에는 지금 운영 중인 골프장을 위시하여 숲속을 이용한 힐링하는 위락시설로 자리 매김하는 것 또한 생각해볼 만하다.

셋째, 천제연을 찾는 관광객들이 많다³⁸⁾. 이들을 중문천을 찾는 이로 바꿔야 한다. 이들에게 자연을 만끽할 수 있고, 느낄 수 있도록 산책로를 확충하고, 계곡의 물을 향시 흐르는 시스템을 설치하여, 지금보다 더 많은 관광객들이 다시 찾는 중문천으로 탈바꿈하였으면 한다.

넷째, 현대는 축제의 시대이다. 칠선녀 축제를 부활하여 활성화 시켜야 한다. 천제연 폭포에 실제로 칠선녀가 내려와 목욕을 하는 광경을 연출하였으면 한다. 전설이 살아 있는 관광지가 되도록 한다. 중문만이 가지고 있는 지역적, 경제적으로 알릴 수 있는 문화의

36) 쉬면서, 놀면서, 먹으면서, 보면서, 들으면서의 제주어

37) 2013년도 제주자치도 방문객 수 10,854천명(내국인 8,521천명, 외국인 2,333천명)

38) 천제연을 관람한 관광객수는 2012년 712천명, 2013년 739천명

축제를 조성해야 한다.

다섯째, 중문천 하류와 천제연의 주위에는 너무 많은 전시시설 등으로 오히려 역사 문화를 이해하고 자연경관을 감상하는 데에 지장이 되리만큼 어지럽게 조성되어 있다. 이들을 단정하고 중문만이 가지고 있는 특색이 있게 체계적으로 재정비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

[참고문헌]

김정선, 2009, 돌하르방의 조형적 특징 검토, 제주특별자치도문화진흥본부 공립박물관 학예조사연구 보고서 1: 82~96

백종진, 2013, 『조선후기 제주지역 마애석각 연구』, 제주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서귀포시 색달동, 1996, 『색달마을지』, 내내로전자출판.

이은정, 2012, 축제의 전승과 지역정체성: 옛 자인형 지역을 중심으로, 영남대학교 박사학위논문.

제주교육박물관, 1999, 『마을공동체 신당을 찾아서』, 우리고장문화유산답사테마기행자료.

제주교육박물관, 2012, 제주도내 폐교 교육자료 특별전 『옛 학교의 흔적을 찾아서』, 일신옵셋인쇄사.

제주도, 1985, 『제주도전설지』, 경신인쇄사.

제주도, 2000, 제주도문화재지정조사보고서: 중문·대포해안주상절리대, 경신인쇄사.

제주도, 제주동양문화연구소, 2000, 『제주도마애명』, 경신인쇄사.

제주도교육연구원, 1996, 『제주의 서당교육』, 시민당인쇄사.

제주문화원, 2002, 『제주사인명사전』, 화신문고.

제주발전연구원 제주학센터, 2013, 『제주통사』 231~2쪽, 하니출판.

제주특별자치도(사)제주전통문화연구소, 2009, 『제주신당조사 - 서귀포시권-』, 각.

중문마을회, 1996, 『불란지야 불싸지라』, 유경문화인쇄사.

중문초등학교총동문회, 2006, 『중문교 80년사』, 제주포커스.

최열, 2012, 『옛 그림 따라 걷는 제주길』 129쪽, 서해문집.

한라산국립공원, 2012, 『한라산』, 열린출판기획.

<http://www.jungmun.es.kr/home/home.jsp>

<http://www.jungmun.ms.kr/home/home.jsp>

<http://www.jungmun.hs.kr/home/home.jsp>

C:\Users\User\Desktop\제주올레.mht

<http://blog.naver.com/hoony603?Redirect=Log&logNo=1101502361872>